

# 시몬느 베이유에서 미하일 바쿠닌까지

## 다양하게 선보이는 革命家傳記들

지난 시대 우리사회가 휩싸였던 전환기적 열병에 맞물려 활발히 출간된 이념도서 가운데 하나가 혁명가들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다룬 전기물이다. 역사의 한갈피에 세계사적인 발자취를 남긴 혁명가에 대한 '招魂'으로서의 전기는 "인류해방의 불을 훑쳐온 프로메테우스"라는 마르크스를 비롯, 국내독자들에게는 낯선 인물인 알렉산드라 콜론타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개되었다.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혁명가가 만들어지고 역으로 그 혁명가가 역사를 어떻게 뒤바꾸는가를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혁명가 전기는 개인의 사상적 편력과 더불어 당대의 혁명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길잡이가 되고 있다. 특히, '해석'의 울타리를 넘어 '변혁'의 장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지적 분위기가 요구한 체제전복적인 사상의 유입이 원천봉쇄된 상황 아래서 혁명가전기는 진보적인 세계관에 다다를 수 있는 우회로를 열어주어,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중달을 쫓아냈던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 활발히 출간된 혁명가전기

지금까지 출간된 혁명가전기물을 살펴보면, 혁명의 '망령'이 풍미한 변혁기에 지칠줄 모르는 투지와 열정으로 투신했던 혁명가와, 숫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사회혁명과 여성해방이라는 두 겹의 고삐와 싸웠던 여성혁명가의 전기가 서점가에 나와 있다. '남성'혁명가들의 경우에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걸쳐 유럽과 러시아에서 활약한 '고전적인' 혁명가와 이후 이들에게 사상적 세례를 받은 제3세계 혁명가군으로 나눌 수 있다.

「인간 마르크스」(피에르 뒤랑 지음, 나혜원 옮김, 두레, 1984)는 마르크스가 그의 주변인물들과 나눈 서신 등을 통해 "행복과 비참으로, 열망과 절망으로, 위대와 왜소로 직조된" 마르크스의 부인과의 사랑을 추적하고 있어 흥미로운 책이다. 이 책이 마르크스의 사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주변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마르크스」(마르크스·레닌주의연구소 지음, 김라함 옮김, 소나무, 1989)는 마르크스전기의 '결정판'으로 정평이 난 책이다. 마르크스에 대한 세계최대 연구소이며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ML주의연구소가 집필한 이 책은 그간의 마르크스전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증적인 자료를 충분히 활용, 마르크스가 활약한



서점가에 있는 나와있는 혁명가전기물. 최근에는 다소 그 열기가 수그러졌지만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기의 역사적 배경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마르크스사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돕고 있다. 마르크스에 대한 레닌의 평가에 큰 빛을 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레닌의 회상」(N.크루프스카야 지음, 김자동 옮김, 일월서각, 1986)은 1894년 페테스부르크에서 레닌을 운명적으로 만나 전생애를 함께 보낸 부인이 직접 쓴 전기. 러시아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 인류역사에 처음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한 천재적 혁명가에 대한 '헌사'로 레닌의 주변 이야기보다는 혁명기의 활약상에 무게중심이 놓여져 있다. 「트로츠키」(아이자크 도이처 지음, 신홍범 옮김, 두레, 1985)는 레닌과 더불어 러시아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연구혁명론'의 주창자인 트로츠키의 생애와 사상을 분석하고 있다. 레닌 사후 권력투쟁에서 스탈린에게 패배, 망명지 멕시코에서 암살자의 도끼에 목숨을 잃은 그의 사상과 혁명기 활약상을 '복권'시키고 있다.

「모택동」(S.슈랍 지음, 김동식 옮김, 두레, 1979)은 모택동의 어린 시절부터 1964년까지의 성장과정과 혁명의 발자취를 쫓고 있는 책. 에드가 스노우가 쓴 「중국의 붉은 별」이 중국혁명의 전개과정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진 전기라면 이 책은 모택동 개인의 혁명적 성장사이다. 「한 알의 불씨가 광야를 불사르다」(아그네스 스메들리 지음, 홍수원 옮김, 두레, 1986)는 중국의 인민해방군 총사령관이었던 주덕의 일대기. 모택동과 더불어 紅軍을 창군하고 드라마틱한 대장정을 겪은 끝에 중국혁명을 완성하기까지의 삶이 저널리스트 특유의

문체에 힘입어 흥미롭게 기록되었다.

「미하일 바쿠닌」(E.H 카 지음, 박순식 옮김, 종로서적, 1989)과 「어느 혁명가의 회상」(크로포트킨 지음, 박교인 옮김, 1985)은 최근 문단의 일각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아나키즘 이해에 도움이 될 전기물이다. 특히, 아나키즘의 '원조'인 바쿠닌의 일대기는 「역사란 무엇인가」로 널리 알려진 E.H. 카의 냉소적 시각으로 그의 삶이 조명된 책이다. 혁명의 넘새가 나면, 비록 3개월된 '임신'을 9개월로 오인한 경우가 많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갔던 풍운아 바쿠닌의 집산주의적 무정부주의와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와의 변별점이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그람시」(제임스 줄 지음, 이종은 옮김, 까치, 1984)는 혁명가 전기의 시기적 하한선을 최근의 인물까지 끌어내린 전기물이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로 '헤게모니론'을 제창한 그의 짧은 삶에 반하는 긴 옥중생활이 관심있게 다루어졌다.

### 또 하나의 '고삐' 강조된 여성혁명가의 삶

여성혁명가의 전기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여성의 삶을 버리고 혁명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관심이 모아져 있고, 여성이기에 겪어야 했던 남다른 고통과 실의가 호소력 있게 띄어져 있다.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그러나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할 이중적 모순이 강조되어 있어 남성혁명가와와는 또다른 고유한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시몬느 베이유, 불꽃의 여자」(시몬느 베르망 지음, 강경화 옮김, 까치, 1978)는 프랑스

의 여성혁명가인 시몬느 베이유의 전기물.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철학교수 자리를 박차고 나와 노동자생활을 했고, 끝내 굶주림 속에서 죽어간 '성녀'로서의 삶이 감동 깊게 묘사되었다.

「여성과 혁명운동」(마리 M 밀레니 지음, 장정순 옮김, 풀빛, 1986)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이르는 기간에 발생한 혁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형적인 여성혁명가들의 전기이다. 룩셈부르크, 이바루리, 마르크스, 콜론타이, 발라바노프 등의 삶과 사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책은 여성혁명가들의 공통된 경향성으로 유도피학적 지향성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비에트리스 판스워드 지음, 신민우 옮김, 풀빛, 1986)는 소비에트의 혁명적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여성문제에 대한 볼셰비키의 대응양식이 잘 드러나고 있는 전기이다. 혁명의 지도자로서도, 여성운동가로서도 실패한 '문제적' 여성으로 평가받는 콜론타이는 혁명 이후 레닌과 사상투쟁을 벌임으로써 권력의 핵심으로부터 이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제3세계의 대표적 혁명가인 카스트로, 체 게바라, 가다피 등의 전기물도 출간되었지만 조악한 편집과 불성실한 번역 등을 이유로 서점가에서 자취를 감추는 '제3세계적 운명'의 길을 걸었던 것도 특기할 만한 현상이나 다.

### 지속적 관심대상 될 혁명가전기

80년대후반까지 비교적 활발히 출간되던 혁명가전기는 작금, 이념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쏟아져 나온 급진적인 이념도서에 의해 그 열기가 다소 수그러진 실정이다.

그러나 "정당한 삶을 박탈당한 동시대인이 존재하는 이상 혁명의 '망령'은 되살아난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이라는 한 독자의 지적처럼 우리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전향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혁명가 전기에 대한 관심의 밀도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것은 역사의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구를 열어나갔던 혁명가의 삶이 우리시대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저항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리라는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련우 기자